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Research on Attitudes of Daejeon Citizens toward the Domestic Adaption

이갑숙*, 손진현**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Kab-Sook Lee(kabsook@gwd.go.kr)*, Jin-Hyeon Sohn(jhsohn@sunmoon.ac.kr)**

요약

정부는 요보호 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과 보호를 위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입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입양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국내입양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대전시민들은 입양부모보다 입양아동 중심적인 입양동기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중심어 : | 입양 | 요보호아동 | 입양정책 |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enforcing policies to activate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guarantee and protect stable family lives of children requiring protection. We surveyed recognitions and attitudes toward adoption and adoption policies of Daejeon citizens. The result will be important information for activating domestic adoption. We could find that motives of adoption centered on adopted children rather than adoptive parents. Especially, the recognition level toward open adoption is high, which shows that the domestic adoption can be activated if multiple political supports are provided for adopted children and adoptive families.

■ keyword : | Adoption | Child Requiring Protection | Adoption Policy |

I. 서론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 속에서 양육 보호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은 양육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각 국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이나 어린이 헌장 등을 제정 공포하여 아동에 대한 인식과 책

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연맹이 1924년에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선포했으며, 1959년 국제연합은 “아동의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아동복지가 향상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아동보호 규정들을 포괄적인 규약으로 묶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1]. 우리

나라도 1991년 비준한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 협약에서 사회의 기초집단인 가족이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을 제공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는 필요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안정된 가족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유대관계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혼인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로 인한 성(性)에 대한 무분별한 결정권으로 이혼율과 미혼부모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위기는 혼인질서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의 수적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아동은 8,861명이다. 1990년 5,721명에서 1996년에는 4,95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9,292명으로 IMF경제위기 영향으로 요보호아동의 수가 증가하여 2001년에 10,586명으로 정점을 이뤘다. 이후, 2004년 9,393명, 2006년 9,034명, 2007년 8,86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2]. 그러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요보호 아동의 수는 증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는 점에서 요보호아동들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입양은 부모가 돌 볼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원한 가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아동복지 영역에서 입양보호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사회에서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내입양은 아동을 위한 최선의 대리보호 형태라고 할 수 있다[3].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1990년에는 국외입양이

64.3%, 국내입양이 35.7%였으나,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점차로 국내입양의 비율이 증가하여 2000년에 41.7%, 2007년에 45.7%에 이르러[2], 국내입양에 대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아직도 국내입양의 비율이 저조한 형편이다. 또한, 더욱 많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 및 연장아 아동들의 국내입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4]. 이와 같이 국내입양이 저조한 것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의 약화,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미비한 입양법, 정부의 지원정책 부재,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결여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5]. 그중에서 특히 뿌리 깊은 전통적 혈연의식으로 인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입양의 이유가 입양부모들의 필요에 의한 입양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입양보호가 요보호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특히 우리 아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우리의 손으로 키우는 국내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전제하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적은 입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행정적,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II. 이론적 논의

1. 국내입양의 개념

Frederickson[7]은 아동은 건전하게 키워질 권리가 있으며 정상적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들에게 이들 권리들을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도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기본권리로서 부모와 사회가 이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8].

Kadushin[9]은 입양(Adoption)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영원히 친자 관계를 맺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

국의 사회사업 사전[10]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내입양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내국인 사이에 법적·사회적 권한을 통해 가족관계를 맺게 하는 사회적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입양정책과 제도의 변화

입양제도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입양시키기 위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고아보다는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동들이 국내·외로 입양된수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11][12]. 요보호아동은 계속적으로 증가 되었으나 정부의 아동복지시설 정비 방침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입양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켰다[13].

그리하여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하여 해외입양의 근거법이었던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입양특례법(1976.12) 제정하여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국외입양을 할당해 주는 쿼터제(Quarter System)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쿼터제를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었으나 입양의 질적 저하와 아동복지 손상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혀 입양 정책 방향이 국내입양 전환에서 해외입양개방(이민확대 및 민간외교 차원)으로 바뀌었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외입양을 금지하려던 정부의 방침은 연기되어 철회되었다[14][15].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국내 외에서 해외입양이 세계 각국 언론의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자 1989년 6월 ‘입양사업 개선지침’을 세워 입양 정책을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저조함에 따라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2000년 이후 이법은 여러차례 일부 개정되면서 입

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사후서비스를 강화는 조항들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 들어 정부는 한가족이(1)이 한 어린이(1)를 입양해 건강한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5월 11일 ‘입양의 날’로 제정하였고, 2007년부터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과 200만원의 입양장려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입양휴가제 실시하고 있으며,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3. 국내입양관련 선행연구

그 동안 국내입양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보다는 입양정책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16-20]. 이는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양 전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공개입양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동수[21]는 공개입양을 한 21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역할만족도와 애착안정성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양어머니의 양육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양어머니의 역할만족정도가 높을수록 애착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진[22]은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가정을 모두 포함한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 입양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는데, 입양가정의 입양 후 결혼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입양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회고적 자료에 의존하여 입양 전후를 비교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경숙, 변미희[23]는 공개입양부모 62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김향은[24]은 32명의 공개입양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입양현황, 공개입양문제, 자조집단 관련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박경련[25]은 입양부모들의 입양공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이들이 입양을 하기까지의 경험, 입양공개이유, 입양공개과정, 입양공개이

2. 입양에 대한 인식

2.1 입양의사

입양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다”가 41.9%, 생각해 본 적 없다 29.4%로 나타난 반면,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18.3%, 있다 10.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없다 45.2%, 생각해 본 적 없다 25.1%,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16.2%, 있다 13.5% 순으로 조사되었고, 여성은 없다 39.5%, 생각해 본 적 없다 32.7%,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19.8%, 있다 8.0% 순으로 조사되었다 (p=0.025).

연령별로는 20대는 없다 33.7%,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31.6%, 30대는 없다 40.7%, 생각해 본 적 없다 32.8%, 40대는 없다 46.7%, 생각해 본 적 없다 27.2%, 50대는 없다 43.4%, 생각해 본 적 없다 33.6%로 나타났다(p=0.001).

결혼 상태로 살펴보면, 미혼은 없다 35.0%,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할 수도 있다 31.7% 순으로 나타났고, 기혼은 없다 43.6%, 생각해 본 적 없다 31.4% 순으로 나타났다(p=0.000).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는 37.3%, 불교 46.0%, 천주교 42.2%, 무교 43.5%, 기타 종교 50.0%가 입양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30).

표 2. 입양의사 빈도(비율)

구분	있다	없다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본 적 없다	합계	
전체빈도	63(10.4)	255(41.9)	111(18.3)	179(29.4)	608(100)	
성별	남성	35(13.5)	117(45.2)	42(16.2)	65(25.1)	259(100)
	여성	28(8.0)	138(39.5)	69(19.8)	114(32.7)	349(100)
연령	20대	13(13.3)	33(33.7)	31(31.6)	21(21.4)	98(100)
	30대	13(6.4)	83(40.7)	41(20.1)	67(32.8)	204(100)
	40대	23(12.5)	86(46.7)	25(13.6)	50(27.2)	184(100)
	50대	14(11.5)	53(43.4)	14(11.5)	41(33.6)	122(100)
결혼 상태	미혼	14(11.7)	42(35.0)	38(31.7)	26(21.7)	120(100)
	기혼	49(10.0)	213(43.6)	73(15.0)	153(31.4)	488(100)
종교	개신교	20(9.8)	76(37.3)	49(24.0)	59(28.9)	204(100)
	불교	15(15.0)	46(46.0)	10(10.0)	29(29.0)	100(100)
	천주교	6(13.3)	19(42.2)	4(8.9)	16(35.6)	45(100)
	무교	18(7.3)	107(43.5)	48(19.5)	73(29.7)	246(100)
	기타	3(30.0)	5(50.0)	0(0)	2(20.0)	10(100)

2.2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리커트(Likert)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한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가 평균값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70.7%), 그 다음으로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용기가 안 난다 68.5%, 입양한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 58.7%, 아이가 입양된 것을 알면 가출하거나 잘못될 것 같아서 54.2%, 다른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53.2%, 내 핏줄이 아니기 때문이다 4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입양을 원하지 않는 이유 빈도(비율)

항목	전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	3(1.2)	22(8.7)	49(19.4)	137(53.9)	43(16.8)	3.77
경제적 도움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4(1.4)	25(9.1)	54(21.1)	141(55.5)	33(13.0)	3.69
내 아이처럼 사랑 할 자신이 없기 때문	9(3.4)	36(14.4)	60(23.5)	125(49.0)	25(9.7)	3.48
입양된 것을 알면 잘못될 것 같아서	5(2.0)	47(18.2)	65(25.5)	111(43.5)	27(10.7)	3.43
사람들의 아동에 대한 차별적 시선 때문	11(4.3)	52(20.2)	57(22.3)	114(44.9)	21(8.3)	3.33
핏줄이 아니기 때문	19(7.3)	65(25.4)	49(19.4)	100(39.1)	22(8.9)	3.18
장애나 유전적인 질병이 발생할까봐	20(7.7)	60(23.6)	54(21.2)	105(41.1)	16(6.5)	3.15
아동이 성장한 후 친부모를 찾을까봐	16(6.3)	69(27.1)	70(27.3)	87(34.2)	13(5.1)	3.04
재산상속 때문	25(9.9)	107(41.9)	79(30.8)	39(15.4)	5(2.0)	2.58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5점)

2.3 입양시 주요 고려 사항

입양을 하신다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1순위에서 “신체적 장애 및 건강상태” 80.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연령 29.6%, 유전적 요인 29.4%, 성별 22.9%, 친부모 배경 21.9%로 나타났다.

표 4. 입양시 주요 고려 사항 (복수응답)

항목	빈도(비율)
유전적 요인	179(29.4)
친부모 배경	133(21.9)
외 모	36(5.9)
신체적 장애 및 건강상태	488(80.3)
혈액형	46(7.6)
성 별	139(22.9)
연 령	180(29.6)
기 타	14(2.3)

2.4 입양 아동사향

만약, 귀하께서 입양을 하신다면 어떤 성별의 아동을 입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별은 상관 없다”가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여자 38.0%, 남자 9.4%, 남자와 여자 모두 3.3%로 나타나 아동을 입양할 때 성별을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아의 인원은 1명이 91.1%로 많았고, 2명은 8.4%, 3명은 0.5%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1명을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아이의 입양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인원은 남아1명 85.0%, 남아 2명15.0%로 나타났으며, 여자아이의 입양을 선호하는 경우 그 인원은 여아 1명 75.0%, 여아 2명 25.0%로 나타났다.

입양아의 연령은 신생아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돌 전후 24.7%, 연령은 상관없다 12.6%, 2~3세 12.4%, 4세 7.9%, 기타 2.6%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신생아의 입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입양아동 사향

항목	구 분	빈도(%)
입양아성별	남 자	57(9.4)
	여 자	231(38.0)
	성별은 상관없다	300(49.3)
	남자와 여자 모두	20(3.3)
입양아 수	1명	511(91.1)
	2명	47(8.4)
	3명	3(0.5)
입양아연령	신생아(9월이하)	240(39.7)
	돌 전후(10월이상)	149(24.7)
	2-3세	75(12.4)
	4세	48(7.9)
	기타	16(2.6)
	연령은 상관없다	76(12.6)

3. 입양방법 및 형태

3.1 입양방법

만약 귀하께서 입양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입양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 하겠다”가 7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친척이나 지인의 아이를 입양 하겠다 15.3%, 산부인과를 통해서 입양 하겠다 4.1%, 기타 3.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할 것으로 나타

났다.

입양을 하시게 된다면 공개입양을 하시겠습니까? 비밀입양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공개입양이 60.4%로 많았고, 비밀입양은 39.6%로 나타나 대부분 공개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공개입양 58.7%, 비밀입양 41.3%, 여성은 공개입양 61.6%, 비밀입양 38.4%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58.2%, 30대 69.6%, 40대 57.6%, 50대 50.8%가 공개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 68.6%, 불교 50.0%, 천주교 64.4%, 무교 57.3%, 기타종교 50.0%가 공개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7).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58.6%, 중학교졸업 28.0%, 고등학교졸업 56.2%, 대학졸업 68.9%, 대학원이상 71.4%가 공개입양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0).

표 6. 입양형태 (공개입양과 비밀입양 중 선택)

구분		공개입양	비밀입양	합계
전체빈도(비율)		367(60.4)	241(39.6)	608(100)
성별	남성	152(58.7)	107(41.3)	259(100)
	여성	215(61.6)	134(38.4)	349(100)
연령	20대	57(58.2)	41(41.8)	98(100)
	30대	142(69.6)	62(30.4)	204(100)
	40대	106(57.6)	78(42.4)	184(100)
	50대	62(50.8)	60(49.2)	122(100)
종교	개신교	140(68.6)	64(31.4)	204(100)
	불교	50(50.0)	50(50.0)	100(100)
	천주교	29(64.4)	16(35.6)	45(100)
	무교	141(57.3)	105(42.7)	246(100)
	그외종교	5(50.0)	5(50.0)	10(100)
학력	초등학교졸업	10(58.6)	7(41.2)	17(100)
	중학교졸업	7(28.0)	18(72.0)	25(100)
	고등학교졸업	178(56.2)	139(43.8)	317(100)
	대학졸업	162(68.9)	73(31.1)	235(100)
	대학원이상	10(71.4)	4(28.6)	14(100)

3.2 입양의 공개 이유

입양사실을 공개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223명 가운데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서”가 65.0% (145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까봐 20.2%(28명), 입양사실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힘들어서 12.6%(45명), 주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1.8%(4명), 기타 0.3%(1명)순으로 나

타났다.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동이 성장하면서 입양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에 빠져 탈선할까봐”가 4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아동이 상처를 받을까봐 34.9%,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아동을 양육할 자신이 없어 12.0%, 부모나 형제 친척이 아동을 수용하지 못해 가정 내 갈등이 있을까봐 11.2%,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3.4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여부

귀하는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에 답하도록 한 결과, 찬성과 매우 찬성의 비율이 “입양부모의 자녀수 제한규정(현행 5명 이내) 없음”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독신가정도 입양 가능하게 하는 것 37.6%,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현행 50세에서 60세미만으로) 29.3% 순으로 나타났다.

입양부모의 자녀수(현행 5명이내) 제한 규정 없애에 대한 남녀차이에서 남성은 3.32점, 여성은 3.29점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정도 입양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성 2.95점, 여성 3.07점으로 여성이 더 많이 찬성하였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에 대해서는 남성 3.06점, 여성 2.98점으로 남성이 더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 빈도(비율)

항목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이다	찬성	매우 찬성	평균
독신가정 입양	52 (8.6)	156 (25.7)	171 (28.1)	188 (30.9)	41 (6.7)	3.01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	22 (3.6)	148 (24.3)	260 (42.8)	155 (25.5)	23 (3.8)	3.02
입양부모의 자녀수 제한 규정 철폐	13 (2.1)	112 (18.4)	207 (34.0)	231 (38.0)	45 (7.4)	3.31

(매우 반대 1점 - 매우 찬성 5점)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국내입양에 대해 어떠한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발견된 사실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입양할 의사에 대해서는 28.7%가 “있다 또는 나중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 입양을 원하는 이유는 67.1%가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을 제공해 싶어서”라고 응답해 아동중심적인 입양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시 중요 고려사항으로 신체적 장애와 건강상태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양아동으로는 신생아(9월 이하)인 여아로 1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양의 방법으로 공개 입양을 60.4%를 선호했다. 공개입양을 선호하는 이유는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서 65.0%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입양에 관한 의식변화를 보였다.

입양부모의 자격요건 완화여부에 대해서 독신가정도 입양하는 것에 대하여 37.6%가 찬성하고 있었고,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는 29.3% 찬성, 입양부모의 자녀수 제한 규정 철폐 4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내입양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대전시민들의 입양부모 중심보다 입양아동 중심적인 입양동기를 갖고 있었다. 특히 공개입양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국내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입양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입양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내 입양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업무영역에 제한되지 않고 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입양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우리사회에서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점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 첫째, 입양정책은 잘 자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며,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입양수당 지급, 입양보육료지원, 의료비 및 교육비지원, 정서·문화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양아동을 위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양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입양가족의 역량 강화 및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양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다. 또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입양을 한 가족에게 일정기간동안의 입양휴가제 및 입양육아휴직제도 실시하고 휴가비를 지원할 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입양자녀 보육도우미 파견 지원, 입양관련 자조모임 지원체계 마련, 입양휴가제 및 휴가비지원, 육아휴직제도 실시, 입양수속금 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 입양이 전통적인 양제제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아동을 위한 입양이 아니고 입양부모의 필요에 의한 부모중심의 입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남아, 연장아의 경우보다 장애아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장애아 입양에 대한 의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11]. 적극적인 입양홍보를 위해서는 입양의 날을 전후하여 입양주간을 지정하여 정부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즉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명시하는 「입양아동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양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느 정도의 여건 변화와 함께 입양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면 국내

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입양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객관성 및 조사대상의 대표성 등 어려움이 있어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노혜련,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정상 행동계획 및 국내 이행 상황과 당면과제, 한국사회정보연구원, p.53, 1993.
- [2] <http://www.mw.go.kr/user.tdf>
- [3] 노혜련,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방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발표문, pp.313-315, 2000.
- [4] 한국입양홍보회대전지부, 2005년 바람직한 입양 문화 형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pp.2-21, 2005.
- [5] 정기원, 안현애, 국내 및 국외입양의 현안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1994.
- [6] 한국입양홍보회,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조사 연구발표 세미나 자료집, pp.22-64, 2006.
- [7] H. Frederickson, *The Child and His Welfare*, San Francisco: W.H. Freeman, p.200, 1950.
- [8] 김형모, “입양후 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pp.51-52, 2001.
- [9] A. Kadushin, *Child Welfare Services*, Macmillan, New York, p.465, 1980.
- [10] <http://www.childwelfare.com>
- [11]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2.
- [12] 최진희, 모선희, “국내입양서비스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통권 제2호, 2002.

[13]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분석,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3.

[14]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우리나라 입양제도개선 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5]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전개과정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16] 이기연, 우리나라 요보호 아동의 국내입양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7] 양점도, 김호연, “국내입양의 사후관리 방안”, 사회복지개발연구, 제4권, 제1호, pp.47-61, 1998.

[18] 김대열, “국내입양 사후관리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통권 제145호, pp.143-163, 2000.

[19] 김형모, “입양후 복지서비스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51호, pp.46-56, 2001.

[20] 이은경, 국내입양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1] 한동수, 입양아의 입양당시 연령, 양어머니의 양육기간 및 역할만족도와 애착안정성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2] 정맹진, 국내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3] 백경숙, 변미희,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산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아동권리연구, 제5권, 제2호, pp.81-95, 2001.

[24] 김향은,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종단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공개입양가정의 입양현황과 자조집단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3권, 제1호, pp.61-80, 2006.

[25] 박경련, 한국사회에서의 입양부모들의 입양공개 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6] 이갑숙, 손진현, “입양부모의 입양태도 조사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7호, pp.149-160, 2007.

[27] 안재진, *A Study on the Early Adaptation of Korean Adoptive Families*,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8.

저 자 소 개

이 갑 숙(Kab-Sook Lee)

정희원



- 1999년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1년 ~ 2006년 :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선임연구위원
- 2005년 ~ 현재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 2007년 ~ 현재 :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정책개발부장

<관심분야> :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아동정책, 여성인적자원개발, 사회복지정책

손 진 현(Jin-Hyeon Sohn)

정희원



- 1986년 : 서울대학교 수학과(이학사)
- 1991년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1997년 :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공학박사)

• 1997년 ~ 현재 : 선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관심분야> : 과학적 의사결정, Network 이론, 여성문제